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16:7-13
2026 년 10 월 4 일 오전 11 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 주여 도우소서 >

우리나라 옛날에 '씨받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6 장에 이와 비슷한 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래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 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래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창 16:2 상반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래의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마디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창 15:4 하반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아이가 사래의 태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래는 아브람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람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그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1. 선택할 수 없었던 하갈

더 큰 문제는 아브람도 사래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짧지만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창 16:2 하반절). 아브람과 사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앞당겨 이루려 했습니다. 헌데 그들의 선택은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애굽 사람 여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1 절). 이름은 있지만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헌데 유대인의 전승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갈이 평범한 애굽 여종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첩에게서 낳은 옹주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2 장에서 아브람과 사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가 '내 딸이 다른 집의 귀부인이 되는 것보다 이 집의 여종이 되는 것이 낫다'며 하갈을 사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그런데 이 전승에 따르면, 바로의 이러한 결정은 하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결정입니다. 공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사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갈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한 번 인생이 바뀝니다. 사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도,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결정했습니다. 바로가 결정했고, 사래가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하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갈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렇게 사래가 결정하고 아브람이 받아들이면서 하갈은 아브람의 첩이 되었고, 얼마 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4 절)고 말합니다.

2. 광야로 도망한 하갈

성경은 하갈이 사래를 어떻게 멸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한 뒤부터 자신의 여주인 사래를 이전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래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부터 사래와 하갈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래는 그 책임을 아브람에게 돌립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5 절). 그러자 아브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6 상반절).

처음에는 사래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었고, 이제 아브람은 다시 하갈을 사래에게 넘겨버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하갈은 또다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래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6 하반절). 성경은 사래가 하갈을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임신한 하갈은 목숨을 걸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물론 하갈도 잘못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주인 사래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래의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하갈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갈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래에게는 학대를 받고, 아브람에게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길입니다. 고향 애굽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자신을 학대했던 사래가 있습니다.

앞에는 광야요, 뒤에는 사래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7 절). 하갈은 아브람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하갈을 살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8 상반절).

3.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래에게는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갈에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대답은 질문의 절반뿐입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8 하반절).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래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은 분명했지만,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갈의 발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9 절).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계속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래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모르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11 절).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갈에게 돌아갈 길을 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아들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10 절).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 "네 씨"입니다. 사래는 하갈을 통해 자기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네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미래가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아무도 하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하갈을 살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13 절).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길을 돌립니다. 애굽을 향하던 길을 멈추고 아브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학대한 사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향하던 발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을 살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갈처럼 발길을 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